발원문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여기는 부처님 나라
부처님께서 나고 깨닫고
가르침을 전하고 입멸하신 곳.

이 땅을 일생일대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우리의 걸음은 신행 원력의 희망으로 삼아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겠나이다.

마을길 골목길 흙길 물길
모든 생명이 평등한 깨달음의 길을
부처의 눈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순례 사부대중은 서로 의지하여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존엄한 생명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폭력과 전쟁을 넘어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부처의 손길로
온 세상의 공존과 상생의 길을 열겠나이다.

내 안에 항상하시는 부처님
마음의 자유와 세상의 평화를 증명하시어
매순간 극락을 펼쳐주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